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본문 : 느헤미야 2:1~10

- 김사무엘 선교사

역경을 다스리는 사람들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주변 상황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경 속에서 자신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역경의 풍랑에 자신을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환경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역경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장을 보면 첫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지혜와 능력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실토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한 말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은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말씀은 천대만대에 이르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기를 이기게 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위기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실패를 자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 시키거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습관으로 그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잘못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다.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민족과 나라와 사회 등 모든 일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에 접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결의로 이런 위기를 넘겨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란 누구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남편이 지도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요, 이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 니산 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기슬르월’이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넷 달이 걸린 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기도에는 기다림이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기도는 기다림과 병행되어야 합니까? 응답을 즉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제거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다림과 기도가 병행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알팍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들을 구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고 그곳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정화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 자신을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림을 주십니다. 응답을 보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깊이 성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길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일시적인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에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오묘한 섭리를 이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의 동기를 점검하기 위해 기다림과 기도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지 동기를 아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순화시키시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약을 쓰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기다림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동기를 점검케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위기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경제의 위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고 감동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물을 참으며 비탄 속에 있을지라도, 응답이 없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암흑의 길을 걷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품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임금이 사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편안하게 삽니다. 불안해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고통하며 그것을 나누어 갖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고통분담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자회가 있지만 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던 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장 월요일 날 3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그 돈이 마련되었답니다. 그분은 돈이 마련되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위기와 함께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격려를 받아서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위하여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느헤미야처럼 얼굴에 수색을 띠고 나라와 민족, 경제위기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죽어가는 북한, 오늘날 이 땅에서 자살을 택하는 난관 속에서 우리가 고통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민족과 나라를 등에 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기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느헤미야는 왕 위에 있는 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군사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하의 무적인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넣겠다고 한 명령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한 위기가 여러분을 잔혹하게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여러분을 혹사시키거나 내리 누르는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을 드십시오. 그 잔혹한 임금 뒤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행동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이 있을 때 당황하며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넉달 동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폴에 존 하가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 지도자 연구원'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래는 진정한 이들을 요구한다'라는 책에서 "목표달성은 일련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단계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이루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그는 제안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목표를 이뤄나가는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인 D.L.무디가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강당은 큰데 사람은 몇 명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당을 다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 밖에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과 지금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자세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취해야할 단계를 자세히 만들라고 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히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폐허가 된 사업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상세하고 자세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긍정적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고치기 원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는 우유부단함을 고치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이 아닙니다. 긍정적도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우유부단함을 어떻게 고칠까?' 이처럼 구체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분명한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단 것과 기름진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맺는 열매들입니다.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적용할만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목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백만 불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라고 할

때, 그것은 황당무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9~10절을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른 사람과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을 건축하는데 항상 반대자, 원수, 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난관과 반대와 두려움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극복하며 목표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장밋빛 카펫을 깔아놓고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목표에 다다른 신앙인들을 보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가 구로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재목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비록 재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 열매는 성전에 쓰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름이 되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감람나무의 참된 아름다움은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때 나무에 가지나 줄기의 추한 것은 잊어버리고 열매의 아름다움만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회한과 고통,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곱던 피부가 살면서 주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현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환경을 지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은 회한이 많지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지도자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웃과 사회,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지고 남이 당하는 고난을 아프게 느끼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왕 위에 계신 왕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끈기 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을 지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시고 쓰시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이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